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4-24호 | 2024년 7월 17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이한주 | idp.theminjoo.kr

제76주년 제헌절 특집호

국회 ‘제헌국회의원상’ 역사적 고증했나?

- 국회의사당 제헌의원조형물 ‘국회개원식’ 아닌 ‘헌법공포식’ 가능성 커
- 역사바로세우기 노력 국회부터 시작해야
- 22대 국회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제헌헌법의 정신 되새겨 민주주의 후퇴, 경제적 양극화 극복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박혁 연구위원(정치학 박사)

1. 막대한 예산 들여 복원한 역사적 순간

- 제19대 국회는 2014년 2월 4일 본회의장 3층 로텐더홀에 제헌국회의원상 기념조형물 설치
 -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인 제헌의회를 업적을 기릴 소중한 기념물
 - 국회가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회를 기억하고 기념해 헌법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겠다는 것이 어서 매우 잘 한 일
- 국회는 이 조형물이 1948년 5월 31일 국회개원식의 순간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설명
 - 1948년 5월 31일 국회개원식기념촬영사진을 토대로 했다고 설명
- 제작비는 약 4억 2,200만원 소요됨
 -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만큼 철저한 역사적 고증이 있었어야 함

〈국회에 설치된 제헌의회 조각상〉



<조각상 추진 개요>

1. 추진경과

- 2012. 7.17 강창희 국회의장, 제64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헌국회의 업적을 기릴만한 기념조형물 건립을 제의
- 2012. 11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입법차장) 구성·추진
- 2013. 7 청동부조 제작자(충북대 류경원 교수) 및 제헌헌법전문 서예작품(김주익) 선정
- 2014. 2.3 제헌국회기념조형물 제막식(중앙홀 전면 양쪽 전면)

2. 제헌국회기념조형물 제원

- 유형 : 청동부조 2개(제헌국회의원상, 제헌헌법전문)
- 크기 및 무게 : 각각 가로 7.1m, 세로 2.3m, 무게 약 3톤
- 제작비 : 4억 2,200만원
- 제헌국회의원상
 -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후 촬영한 기념사진을 토대로 제헌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 198인과 국회사무총장 등 모두 199인을 청동인물부조로 조각

2. 중요한 역사적 순간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 역사적 고증은 한 것인가?

- 국회가 조각상 토대로 삼은 국회개원식 기념사진(5월31일 촬영)은 이미 논란의 대상이었음
 - 제헌의원상 제작 이전에 이미 온라인상에는 동일한 제헌의원 기념사진이 서로 다른 날짜의 캡션이 달려 떠돌아다님
 - 1948년 5월 31일 국회개원식 사진이나 1948년 7월 17일 헌법공포 후 찍은 기념사진이나를 두고 혼란이 있었고 지금도 혼란 지속(일요신문, 2024.7.17. 참조)
 - 국회는 이 사진이 1948년 5월 31일 국회개원식 기념촬영사진이라는 설득력 있는 근거도 없이 국회개원식 사진으로 단정
- 이 조형물의 역사적 날짜 문제는 단순히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조각상의 주제가 ‘국회개원이나 헌법제정이나’라는 중대한 문제
 - 국회는 조형물 제작을 계기로 자신의 역사를 바로잡고 혼란을 정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고증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책임 방기





3. 국가기관들이 동일한 하나의 사진을 두고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지속

- 국가기관들이 동일한 제헌의회 사진을 두고 서로 다른 촬영날짜(48. 5.31/ 48.7.17) 제시

| 기관명 | 사진 캡션 | 시기 | 비고 |
|---------|------------|---------|------------|
| 국립민속박물관 | 헌법 공포 기념사진 | 48.7.17 | 2009년 구입 |
| 중앙선관위 | 헌법 공포 기념사진 | 48.7.17 | 국립민속박물관 인용 |
| 국회기록보존소 | 제헌국회의원기념촬영 | 48.5. | 네거티브 필름 |

<국회기록보존소>

제헌국회
(1948.05.31 ~ 1950.05.30)

제헌국회를 구성할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실시되어, 유권자 약 740만명이 등록하여 95.5%가 투표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하였다.



제헌국회의원 기념사진

제헌국회 개원일인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의원들이 중앙경을 배경으로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1948.05.31)

<중앙선관위>



1.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사진 (복제, 국립민속박물관)

- 국회는 사진 하단에 “제헌국회의원 기념촬영, 4281. 5”라고 쓰여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진을 개회개원식 사진(48년 5월 31일)로 설명 ↔ 7월17일 캡션 달린 사진 존재 무시
- 최초의 국회자료라 할 수 있는 1967년 자료에는 사진촬영날짜를 1948년으로만 표기하고 제헌국회의원 일동 기념촬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이후 5월 31일로 날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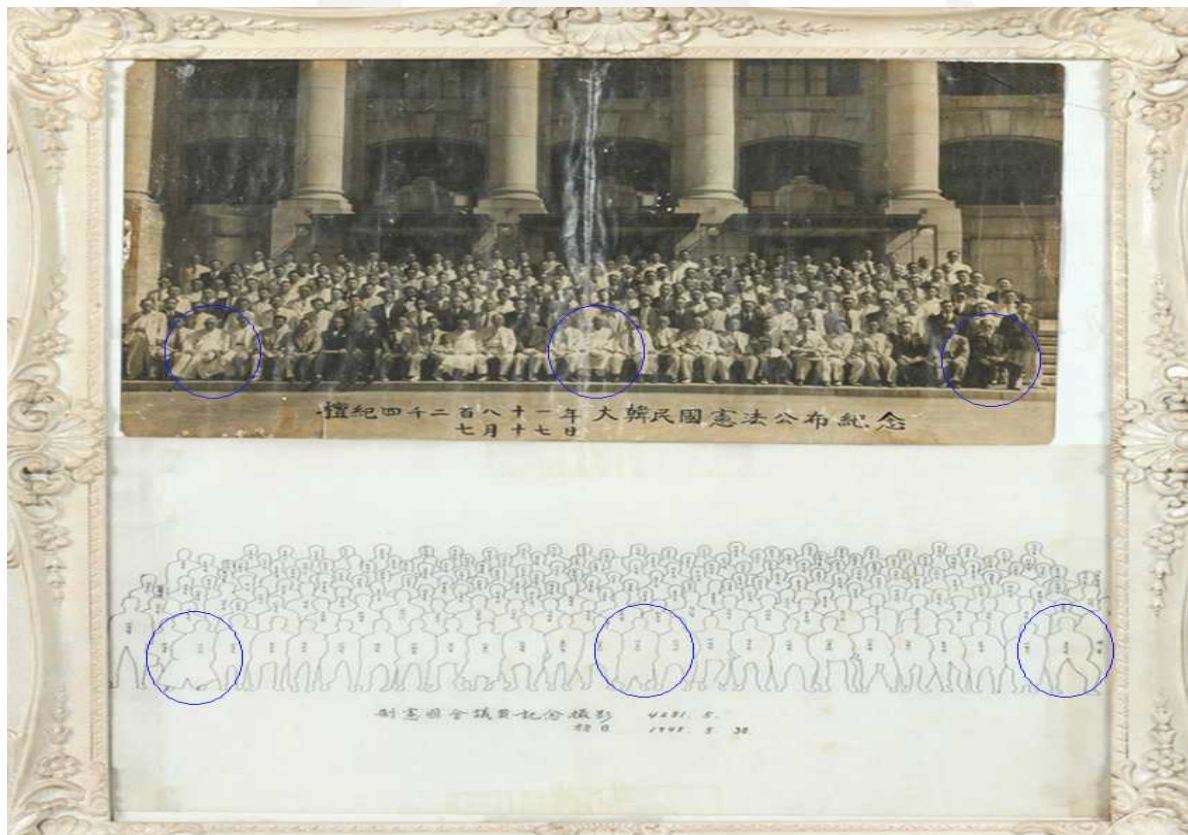
<국가기관 온라인 출처 상황>

| 기관명 | 자료 출처 | 사진 캡션 | 시기 |
|---------|------------------------|------------------------|------------|
| 중앙선관위 | 선거사료 소개 |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사진 | 1948. 7.17 |
| 국가기록원 | 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 헌정 (2015) |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촬영 | 1948. 7.17 |
| 국회기록보존소 | 국회연표 | 제헌국회의원 기념촬영 사진 | 1948. 5.31 |
| 국회도서관 | 사진으로본 국회 20년(1967) | 제헌국회의원 일동 중앙청 앞에서 기념촬영 | 1948. |
| | 국회사(1971) | 제헌국회의원 기념촬영 | 1948.5.31 |

4. 헌법공포기념촬영사진(7월 17일)이라는 강력한 근거

- 1) “단기 4281년 대한민국헌법공포기념 7월 17일”이라는 다른 캡션이 달린 동일한 사진 존재
 -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이 사진을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사진”으로 설명.
 - 국립민속박물관은 이 사진을 2009년 액자 채로 기증받음
 - 액자에 끼워진 채 기증된 두 개의 사진 날짜 캡션이 달라 고증이 필요
 - 날짜가 달리 적혔지만 두 사진의 인물을 대조하면 동일한 사진이 분명함(특히 원 안의 인물 : 서정희 - 이승만 - 오석주)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액자>



2) 5월 31일에 사진 찍지 않았다는 제헌국회 회의록 증거

- 1948년 6월 30일 제헌국회 제21차 회의에서 정해준 의원의 발언
 - 5월 31일 개원식 때 의원 단체기념사진을 찍지 못한 것을 유감이라고 언급
- 회의를 마치고 유엔위원단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는 동의를 구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음

<제헌의회 제21차 회의록, 48년 6월30일>

정해준 의원 우리의 국회가 생기게 된 것은 우리 반만년 역사의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역사에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개원식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 실로 초유의 거사이였고 그야말로 기억에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자리에서 모였을 때에 으레히 우리 일동에 역사적으로 생긴 이 국회인만큼 우리가 일당에 모여서 기념할 수 있는 사진을 같이 그때 찍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만반의 유감으로 생각했든 것입니다.

유엔위원단이 오늘 특별히 우리 국회에 참석하는 광영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개원식날 촬영을 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든 바 이 기회에 있어서 유엔단 여러분과 같이 우리 여러분 의원 일동이 다같이 기념 촬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에 있으면 동의하겠습니다.

(「재청」, 「삼청」, 「사청」 하는 이 있음)

부의장 김동원 그런데 사실상 그 사진이라는 것은 아마 기술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해준 의원 그러면 동의를 하지 않고 의견으로만 말씀합니다.

3) 7월 17일에는 사진 찍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제헌국회 회의록

- 제헌헌법 공포를 하루 앞둔 7월 16일, 제31차 회의에서 헌법공포식 절차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이유선 의원이 기념촬영을 순서에 넣자고 제안
- 부의장 김동원은 사무국에서 사진촬영 준비를 하라고 지시
- 홍희종 의원은 더 나아가 사진촬영, 방송 등을 위해 모두가 예복을 입고 오자고 제안

<제헌의회 제31차 회의록, 48년 7월16일>

단기4281년7월16일(금) 상오 10시

1. 대한민국헌법공포식절차에관한보고

○ 의사국장 차윤홍 내일 오전 10시에 본 의사당에서 거행하게 된 헌법 공포식 절차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유선 의원 순서에 안 넣도 되기는 되겠지만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것은 사무국에 알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의원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개회사를 사무총장이 하시게 되었는데 영도자이신 이 박사께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것도 잘 알아서 좋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종 의원 내일 거행할 우리 헌법 공포식은 우리 국가로서는 가장 큰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헌법 공포하는 광경…… 이것을 중앙방송국을 통해서 전국에 중계 방송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 국회의원 된 여러 동지들은 예식을 갖추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복을 입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를 건의하는 바이올시다.

4) 5월 31일 기념촬영 관련 언론보도 없음

- 국회개원식 보도 기사에는 기념촬영을 했다는 기사 없음
- 개원식이 끝나고 곧바로 시가행진했다고 보도
- 당시 정황과 시간상으로도 기념촬영이 없었다는 것이 확실
- 개원식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2시부터 열림. 신문보도에 따르면 3시반경 개원식이 끝나자마자 이승만은 자동차로 시가행진을 했고 5시경 모처에서 해산

<국회개원식 당일(5.31) 신문보도>

국회개원식이 거행되는 31일 서울시내는 이른 아침부터 집집마다 태극기를 달게 하고 각관공서·원·학생·청년단체·사회단체·시민들이 손에 국기를 들고 삼삼오오 대를 지어 세종로와 태평로를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나팔소리 태극기 프랑카트로 의사당인 중앙청으로부터 남대문까지의 넓은 가도는 입주의 여지가 없이 차 있었는데 각 단체 배치는 중앙청으로부터 광화문 네거리까지는 학생, 광화문으로부터 남대문까지는 각 청년단체의 순서로 양편에 행렬을 짓고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개원식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반경 개원식이 끝나자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박사는 삼엄한 경호리에 부인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일반이 도열한 세종로로부터 남대문로로 향하여 군중의 만세와 박수를 받으면서 통과하고 뒤이어 각 단체·악대를 선두로 시가행진을 시작하여 동 5시경 각각 소정의 장소에서 해산하여 국회개원의 행사를 끝막았다.

(경향신문, 1948. 6. 1)



5) 거의 모든 신문이 7월 17일 기념사진 촬영했다고 보도함

- 7월 17일에는 헌법공포식 후 제헌의원 기념촬영과 헌법기초위원 기념촬영을 했다는 보도가 선명함
- 자유신문, 동아일보 등 7월 18일 자 신문들은 7월 17일 헌법공포식 폐회 후 국회의원 전원의 기념사진을 찍은 다음 헌법 및 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 사진을 바로 찍었다고 보도함



1. 대한민국 헌법 공포 기념사진(복제, 국립민속박물관)



헌법기초위원회기념사진

5. 역사적 오류 바로잡아 제헌헌법의 헌법정신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 만들어야

- 국회가 높은 역사적 감수성으로 작은 역사적 오류라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해야 함
- 제헌의원상을 헌법제정기념 조형물로 바로잡는 일은 단지 날짜수정과 역사바로세우기 넘어
- 제헌의회가 헌법에 담고자 했던 헌법정신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제헌의회가 선언한 대한민국헌법의 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
-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극에 달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바로잡는 데 국회가 앞장 서 모든 노력 다 해야 함

♣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